

LG, 중소기업과 2차전지 개발 착수

케이디시스텍 EV용 인버터에 에코프로 부품소재 ... 헬스케어 협력도

LG는 케이디시스텍과 에코프로 등 중소기업 17곳과 함께 태양전지와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등의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LG는 12월8일 서울 양재동 서초 R&D 캠퍼스에서 <LG-중소기업 테크페어> 행사를 열고 차세대 기술을 함께 개발할 중소기업 17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는 태양전지 5개, 배터리 5개, 헬스케어 3개, 차세대 조명 2개, 그린 홈 분야 2개 등이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LG로부터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받는다.

케이디시스텍은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인버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에코프로는 2차전지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발에 나선다.

LG는 우수 중소 협력기업에 2011년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처음으로 열린 <LG-중소기업 테크페어>는 LG가 8월에 협력기업과 그린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동반성장 전략 과제를 발표한 이후 실천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주)LG 조준호 사장과 LG기술협의회 의장 백우현 사장,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안승권 사장, LG화학 기술연구원장 유진녕 부사장 등 LG 경영진과 기술담당 임원 및 연구원, 17개 중소기업 대표이사 및 직원 등 1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각사의 기술 현황을 전시했고 LG 계열사 연구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미나를 열고 그린 신사업 분야의 사업 및 기술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조준호 (주)LG 사장은 “테크페어를 통해 LG와 협력기업이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08>